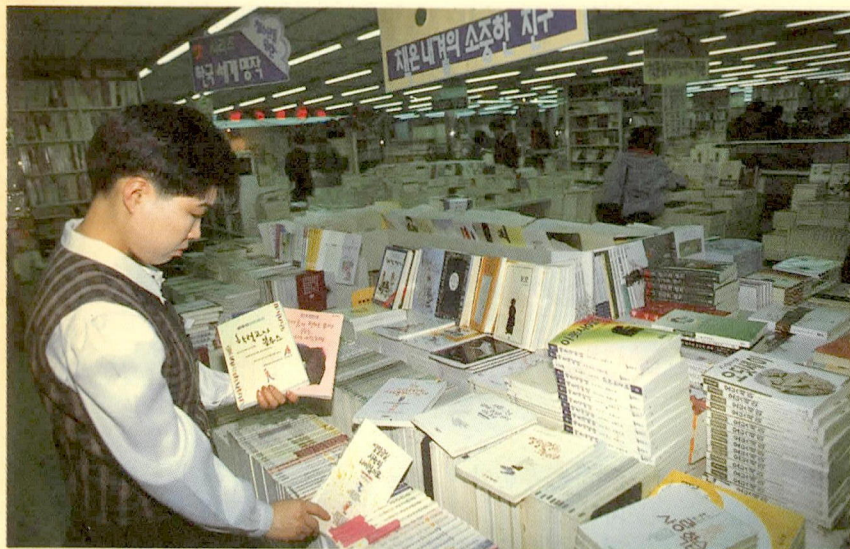




청소년층에 인기 높은 하이틴소설

현실 왜곡·과장, 악영향 끼칠 우려 커

‘청소년 소비주체 아닌 상품 소비자로 여기는 상흔’ 비난

◀ 각 대형서점에는 하이틴소설 전용 코너가 있고 신간만도 20여권 이상 발간되어 꾸준히 팔려 나가고 있다.

요즘 10대들은 너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지적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이른바 ‘하이틴 소설’이라고 불리는 책들이다. 아무리 책과는 담을 쌓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런 류의 소설 한두권씩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신세대 하이틴 소설을 6,70년대에 유행하던 ‘알개 시리즈’ 정도로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부모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큰 착각이다. 어디까지나 교훈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던 과거의 ‘명랑소설’에 비해 현재의 하이틴 소설은 여러가지 우려할 만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의 모든 책들이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사랑’이 지극히 왜곡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이다. 사랑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책들만 해도 20여권이 넘는다.

여기서 묘사되는 사랑은 대개 학생과 선생님간의 사랑, 대학생과 여고생간의 사랑, 동급생 간의 거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뜨거운 사랑들이다. 간혹 가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랑이 등장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다.

사랑의 상대 자체가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관계일 경우가 많고 그 표현 역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글로서는 낯뜨거울 정도로 노골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대에 사랑을 해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며 모름지기 사랑이란 이성보다는 감정에 충실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소설들은 또한 우리 교육이 지닌 문제를 지극히 일면적이고 표피적인 형태로 축소해버리고 그 책임을 특정 교사나 학부모의 개인적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오류를 종종 범한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의 탈선이란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모든 책임은 교사와 부모의 몰이해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자 결론이다.

이러한 소설의 전개는 또 하나의 문제점, 즉 학생들의 탈선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거기다가 마약사용이나 폭력, 가출, 심지어는 성관계까지 이르는 지나치게 적나라하고 무분별한 묘사는 청소년들의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여 실제로 그와 유사한 행동을 부추키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아울러 거의 모든 소설에 전교조 교사가 양념처럼 등장, 나쁜(?) 사람들을 통제하게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중학교의 김종호 교사는 “전교조 해직교사마저도 상업적인 이야기 전개 속에 끌어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상품화시켜버리는 알파하고 무책임한 출판사의 자세”를 비판한다.

하이틴 소설이 흥미 위주의 상업적인 내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이상의 책들이 대개 영화화를 목적으로 쓰여졌거나 반대로 영화시나리오를 소설로 개작한 것들이 많다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필자들 또한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르브라이터나 아마추어 시나리오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소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은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아닌 상품의 소비자로 전락시켜 상업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출판사의 무책임한 상술이라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하이틴 소설이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들의 문화와 말하기에 목말라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소설은 절대 읽어서는 안된다는 식의강요는 결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의 독서습관과 성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지도를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좋은 책을 선별해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독서 지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에도 재론의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다.

〈이나리 기자〉